무안국제공항 '고속철 정차역' 설치 본격화

지방공항 중 유일…2023년 개통 예정
목포~부산 남해안 고속철 연결 추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무안국제공항~목포간 신설 노선 추진에 따라 무안국제공항 고속철도 정차역 설치공사가 본격 착수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고속철도 정차역은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정차하고 여객청사로 접근성과 이용객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 지하에 설치된다.

특히 입체 동선 구성 등을 통한 세계적인 철도역사로 건설돼 지역 랜드마크로서 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국가철도공단과 관련 지자체(나주, 무안, 함평)로 구성된 '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토지보상, 민원 해결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2023년 개통될 목포~부산간 남해안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이 노선이 무안국제공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선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사업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1시간50분대, 부산·경남권에서도 당초 6시간 30분에서 4시간이 단축된 2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의 이용범위가 수도권은 물론 남해안권까지 확대돼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고속철도는 지난 2004년 호남선 복선 및 전철화, 2015년 광주송정역까지 고속철도를 개통한 후 공항 경유 문제로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11월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가 추진돼 왔으나, 완전 개통 시기는 2025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이 설치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이 전남만의 공항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 관문공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역(가칭) 조감도. 무안국제공항은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철도가 정차할 예정으로, 전남도는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목포~부산 남해안 고속철도와의 연결선 구축도 추진중이다. 〈전남도 제공〉

광주일보 6년 연속 지발위 우선지원사 선정

광주일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의 '2021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6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18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로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일간지 29개사와 주간지 48개사 등 모두 77개사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선정된 70개사에 비해 올해는 7개사가 늘었다.

지역신문발전위의 일간지 우선지원 대상사는 제작·취재·판매·광고 관련 윤리자율강령 준수,기자채용 및 인사관리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올해로 창간 69년을 맞은 광주일보는 선도적인 지면쇄신과 경영개선 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신문으로서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광주일보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기획취재, 지면개선, 시민기자 활용, 연수교육사업, 창의 주도형사업 등 지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부영골프장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절차 중단하라"

나주시, 다음달 3일 공청회 열어
광주·전남 시민단체, 강력 반발

지역사회의 공익 확대 방안 마련 요구에도 나주시가 (주)부영주택 측이 요청한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토지 용도 변경 관련 공청회 개최 등 행정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19일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건'을 일간지에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주택 측이 요청한 토지 용도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알리고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주민 공청회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주시는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사회 여론을 사업자 측에 알리고 사업 내용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거듭된 비판에도 나주시가 부영주택 측에 끌려가는 모습을 시종 보여왔기 때문이다.

개발 과정에서 공익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역사회 요구에도 나주시가 공청회 개최 등 행정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영 특혜 반대' 움직임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 조성 관련 용도지역 변경 반대 촉구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나주시가 2월 초 부영골프장 부지 공동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파악됐다"며 "나주시와 전남도는 공익을 현저히 훼손하는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토지 용도 변경 관련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와 나주시가 지난 2019년 7월 부영주택과 맺은 3자 합의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특혜를 막기 위한 운동을 지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명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 21,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빛가람동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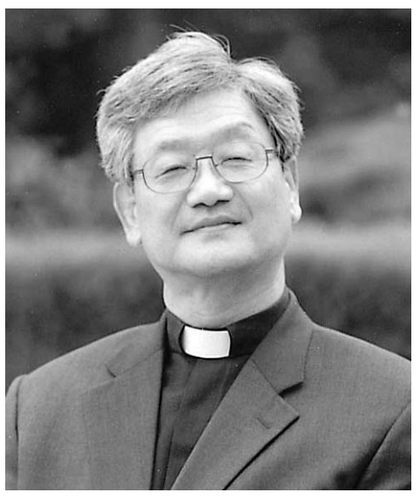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40만㎡)로 내놓은 땅을 제외한 빛가람동 908번지 부영골프장 잔여지 35만2294㎡에 5000여 가구 규모 고층 아파트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 당시 계획에 없던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 변경이 추진되면서 ▲아파트 초과 공급 ▲녹지 및 공원 비율 축소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아파트 가격 폭락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반면, 부영측은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 진상 전국에 알린 정형달 신부 선종

김수환 추기경 찾아가 조비오·김성용 신부 구명 활동도



1980년 5·18 당시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정형달〈사진〉 바오로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78세.

18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정형달 신부가 16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정 신부는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린 '사제의 맥'을 잇는 분이다. 조비오 신부, 김성용 신부, 정형달 신부로 맥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1943년 나주에서 태어난 정 신부는 서울 가톨릭대를 졸업하고 1969년 사제품을 받았다.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과 해남본당, 농성동본당, 임곡본당, 옥암동본당 주임신부를 지냈으며 지난 2011년 퇴임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정형달 신부는 조비오 신부와 김성용 신부가 당시 영어의 몸이 됐을 때, 서울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뵙고 구명활동을 전개했다"며 "무엇보다 5·18의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또한 "생전의 조비오 신부와 '광주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며 "두 신부님은 광주항쟁의 진실을 위해 애썼던 '민주화운동의 스승'"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신부는 5월 관련자들의 사면과 구명운동은 물론 5월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데도 헌신했다.

정 신부는 1980년 6월 광주대교구 사제단이 광주항쟁 이후 최초 발표한 '광주사태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 성명서는 한국천주교 모든 교회에 전달되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기폭제가 됐다.

당시 고인이 작성한 성명에는 "비상계엄이라는 허울 속에 정부 당국의 거짓된 발표와 통제된 언론의 편향보도로 인하여 철저히 왜곡되어 있다"며 "사태의 원인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례미사는 19일 오전 10시 염주동본당에서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주례한 가운데 봉헌할 예정이며 장지는 담양천주교 공원묘원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주 SRF 발전소 관련 위법·부당 행정 진상 규명"

혁신도시 시민단체, 발전소 건설·광주 쓰레기 반입 등 감사원 감사 청구

빛가림혁신도시 SRF 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은 18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및 광주 쓰레기 반입 추진 과정에서 이뤄진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에는 주민, 공공기관 직원 등 1870명이 참여했다.

감사 청구 대상 기관으로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부, 광주시를 적시했다. 주민모임은 감사 청구서에서 환경부는 2012년 난방공사가 SRF 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의 적절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모임은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SRF 발전소 연료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사회·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광주시에 대해선 나주시와 적법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광주시 쓰레기 연료의 반입을 추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 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됐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험 운전을 시작,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문제와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멈춰서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고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통로 5층 승강기 有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통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답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즙,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답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홈플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1년 1월 18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 금 306,000,000원을 금 30,600,000원으로 감소하고 자본감소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의 주식 1주에 대하여 0.1주의 비율로 무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30,600주를 3,06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함.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고 또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주식회사 씨티개발
전남 화순군 동면 응봉로 236-13
대표이사 김 석 중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정재훈(570920-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남구 군분로78번길 12-3 (월산동)

피상속인 망 정재훈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1507호로 신청하여 2020년 11월 2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1월 19일

• 상속인 : 권요임(590804-XXXXXXX)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156 104동 908호 (일심리, 화순청전아파트)
• 신고기간 : 2021. 1. 19. ~ 2021. 3. 30.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권요임의 주소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 : 순천시 삼산초등길19 203동501호 (매곡동)서한이다음
• 계약자 : 최 숙 현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1년 1월 19일

산행안내

1월 24일(일)

▲광주kj산악회 1월 24일(일) 당신과함께하고싶은!북덕유산 향적봉 눈꽃산행, 염주체육관 07:30, 동아병원옆 07:35, 롯데백화점 07:40, 광주역 07:45, 문예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69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2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5-5530	• 백 운 651-1833
	• 봉 선 675-5530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3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